

CONTENTS

본교재와 해설지 모두 맨 뒤쪽에는 '빠른 정답'이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기 전 채점을 하고 싶으시다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권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생각의 시작

Day 1

교재의 사용법	012P
국어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 : '생각'합니다.	019P
필연성, '생각'의 시작	022P
글 읽기의 시작 - 어휘력	025P

Day 2

독서 공부의 기본 : 이해하고, 납득한다.	034P
문장 단위 독해 연습 - 개념의 정의	038P

Day 3

문장 단위 독해 연습 - 재진술	048P
문장 단위 독해 연습 - 사례-원리 연결	058P
문장 단위 독해 연습 - 고정값	063P

Day 4

단문 단위 독해 연습	066P
문제풀이 기본 도구	076P

생각의 전개

Day 5~Day 10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1) :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	088P
--	------

Day 11~Day 14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2) : 결국, 다 같은 말이다.	118P
--	------

Day 15~Day 16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3) : 정보는 카테고리화된다.	138P
---	------

Day 17~Day 18

추상적인 원리는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한다.	150P
-------------------------	------

생각의 확장

Day 19~Day 20

제재별 독해 - 인문

164P

2권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Day 21~Day 22

제재별 독해 - 인문

Day 23~Day 28

제재별 독해 - 과학 · 기술

Day 29~Day 33

제재별 독해 - 법

Day 34~Day 40

제재별 독해 - 경제

Day 41~Day 42

생각의 틀 총정리
오답과 정답을 가르는 시험장에서의 태도
2024학년도 수능

교재를 마무리한 후

지문 목차 _ 독서편

복습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문의 목차를 정리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예시로 들었던 지문을 제외하고, 한 지문 단위로 공부해보았던 지문만 정리했습니다.

1권

생각의 전개

Day 5~Day 10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1) :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

2011.06 [23~27] 인문 '회화적 재현'	092P
2015.11B [21~24] 인문 '사회 이론'	094P
2015.11B [17~20] 인문 '신채호의 사상'	096P
2018.06 [16~21] 인문 '율곡의 수기치인'	098P
2020.11 [26~29] 기술+과학 '이식의 문제점'	102P
2023.06 [4~9] 인문 '역사와 학문의 정치 현실 적용'	104P
2023.11 [14~17] 과학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비례 관계'	108P
2020.06 [37~42] 인문+과학 '개체성'	110P
2019.11 [27~32] 과학+인문 '서양과 중국의 우주론'	114P

Day 11~Day 14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2) : 결국, 다 같은 말이다.

2021.12 [16~21] 인문 '북학파와 청나라'	122P
2017.11 [37~42] 사회(경제+법) '공정한 보험과 고지 의무'	125P
2021.06 [29~33] 사회(법+경제) 'ICT 산업'	128P
2023.09 [14~17] 기술 '인터넷 검색 엔진'	130P
2022.11 [14~17] 기술 '어라운드뷰'	132P
2022예시 [5~10] 인문 '이원론&동일론'	134P
2022LEET [19~21] 인문+사회(경제) '소유와 지배의 분리'	136P

Day 15~Day 16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3) : 정보는 카테고리화된다.

2019.09 [29~32] 기술 'STM'	142P
2024.09 [4~7] 사회(법+경제)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	144P
2010.09 [13~17] 인문 '동양에서의 천(天)'	146P
2021.12 [34~37] 기술 '3D 합성 영상'	148P

Day 17~Day 18 추상적인 원리는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한다.

2017LEET [1~3] 사회(법) '범죄의 성립 요소'	152P
2022.06 [4~9] 인문 '서양과 동양의 인과 관계'	154P
2019.11 [39~42] 인문 '가능세계'	158P
2023.06 [14~17] 사회(사회학) '사건의 효과 평가'	160P

2권

생각의 확장

Day 19~Day 22 제재별 독해 - 인문

2022.06 [10~13] 인문 '베카리아의 형벌론'	168P
2017.11 [16~20] 인문 '과인의 총체주의'	170P
2023.09 [4~9] 인문 '아도르노의 미학'	172P
2024.06 [12~17] 인문 '의식과 지각'	175P
2022.11 [4~9] 인문 '변증법 모델로 본 예술의 상대적 위상'	
2020LEET [19~21] 인문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	
2023LEET [28~30] 인문 '법과 폭력의 관계'	

Day 23~Day 28 제재별 독해 - 과학 · 기술

2024.06 [8~11] 과학 '고체 촉매의 활성화'	
2014.11A [28~30] 기술 'CD 드라이브'	
2018.06 [30~34] 기술 'DNS 스푸핑'	
2018.11 [38~42] 기술 '부호화'	
2013.11 [43~45] 기술 '음성 인식 기술'	
2017.11 [33~36] 과학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이용'	
2023.06 [10~13] 과학 '비타민 K의 역할'	
2019.06 [35~38] 기술 'LFIA 키트'	
2016.11B [29~30] 과학 '중단 속도에서의 힘의 평형'	
2022예시 [30~34] 기술 '충전지'	
[피렘의 국어공작소 자작문항] 기술 'MRI'	

Day 29~Day 33 제재별 독해 - 법

2017.09 [35~39] 사회(법) '법인격 부인론'	
2019.06 [22~26] 사회(법) '사법'	
2023.09 [10~13] 사회(법) '유류분권에 의한 무상 처분 재산 반환'	
2020.09 [27~31] 사회(법) '점유'	
2019.11 [16~20] 사회(법) '법률 효과'	
2021.12 [26~30] 사회(법) '예약'	
2021.09 [26~30] 사회(법) '행정입법'	
2023.11 [10~13] 사회(법) '법조문에서의 불확정 개념'	
2014예비A [22~24] 사회(법) '법률의 해석'	
2019LEET [28~30] 사회(법) '근대법의 기획'	

Day 34~Day 40 제재별 독해 - 경제

2020.11 [37~42] 사회(법+경제) '말랑말랑한 법(soft law)'

2019.09 [21~25] 사회(경제) 'CDS 프리미엄'

2011.11 [44~46] 사회(경제) '채권의 가격'

2018.06 [22~25] 사회(경제) '통화 정책'

2020.06 [27~31] 사회(경제) '금융과 경제 안정'

2019LEET [16~18] 사회(경제) '심적 회계'

2017LEET [14~17] 사회(경제) '금융 위기의 원인'

2018.11 [27~32] 사회(정치+경제) '정책 수단의 선택'

2022.11 [10~13] 사회(경제)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단어’ 단위의 공부를 ‘문장’ 단위로 확장시키는 날입니다. 수능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문장이 출제되고, 우리는 그 문장들을 어떤 ‘생각’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봅시다.

독서 공부의 기본 : 이해하고, 납득한다.

본격적인 문장 학습에 앞서, 앞으로 독서 파트를 공부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하나를 세우고 가겠습니다. 국어를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장에서의 ‘시간 부족’을 호소합니다. 한두 지문을 통으로 찍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독서 지문은 구경도 못해봐서 어떤 제재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웃픈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45문제를 80분 안에 푸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시간을 남기기도 한다고 하니 그 비법이 궁금해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학생들은 물론 지문도 빨리 읽겠지만 ‘선지 판단’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 지문을 읽는 시간과 선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거의 반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율을 지문 7.5 : 선지 2.5 정도의 비율로 만들 수 있어야 비로소 시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애초에 텍스트의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혹은 지문에서 요구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문을 읽는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선지 판단’의 시간을 줄여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선지 판단’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선지 판단의 태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문 읽기’를 잘 하는 것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한다면, 대부분의 선지들이 굳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선지’가 됩니다. 혹은 지문을 읽으면서부터 ‘미리 생각’한 내용이 선지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평가원은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었다면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선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문 읽기’를 잘 하는 것은 ‘선지 판단’의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 판단’을 빠르게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문 읽기’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생각의 양 / 생각의 질 / 출력 속도]

바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학생들은 하나의 문장 · 하나의 문단을 보고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 · 문단을 읽고서 머릿속에 남길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선지의 내용과 본인이 한 생각이 겹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하게도 ‘선지 판단’의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구요.

또한 그 생각들의 ‘질’이 매우 높습니다. 지문의 핵심과 무관한 생각, 특정 단어에 꽂혀서 삼천포로 빠지는 생각 등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지문의 중심 내용에 맞춰 중요한 생각을 적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평가원은 이렇게 ‘중요한 생각’의 내용을 선지로 출제합니다. 당연히 ‘선지 판단’의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나아가 이렇게 ‘양’ 많고 ‘질’ 좋은 생각을 아주 ‘빠르게’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좌절합니다. 이 교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다보면, 생각의 ‘양’과 ‘질’ 측면은 꽤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장 교재의 후반부만 가도 어느새 해설지와 똑같이 읽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예요. 하지만 막상 시간을 재고 타이트한 상황

에서는 그렇게 ‘양’ 많고 ‘질’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벽을 넘어야 비로소 국어 영역 1등급이라는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양’ 많고 ‘질’ 좋은 생각의 ‘출력 속도’를 높이는 것이 국어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의 경험’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납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교재에서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본인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헛갈리지 않게 정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납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당 내용이 일종의 상식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도록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납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들의 ‘출력 속도’가 빨라지면 ‘선지 판단’의 시간도 확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독서 지문을 공부할 때는, 최대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납득’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을 그냥 넘어가는 유연함도 필요하겠지만, 평소 공부할 때는 이러한 ‘생각의 경험’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 잘 와닿지 않으시죠?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래 문단을 읽으면서, 최대한 ‘이해’하고 ‘납득’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장의 내용이 ‘당연’하게 느껴지도록 읽으시면 됩니다. 스스로 해 본 다음 해설을 읽어보세요.

①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②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③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④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을 지칭한다. ⑤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⑥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⑦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⑧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⑨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⑩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⑪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한다. ⑫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① 당연한 말입니다. 뽕뽕거리는 ‘심벌즈 소리’보다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더 듣기에 좋죠.
- ② 이렇게 듣기 좋은 ‘피아노 소리’와 같은 것을 ‘고른음’, ‘심벌즈 소리’와 같은 것을 ‘시끄러운음’이라고 합니다. ‘고르다’와 ‘시끄럽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③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기성’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음이 특정한 ‘주기’를 갖는 ‘성’질일 것인데, 특정 음이 ‘주기’를 가지는 경우에는 무언가 규칙적인 느낌이 있으니 ‘고른음’이 될 것이고, ‘주기’를 가지지 못하면 소리가 불규칙하게 나기 때문에 ‘시끄러운음’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 ④ 일반적으로 음악에서의 ‘음’은 ‘고른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음악의 소리를 ‘듣기 좋은 소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에 해당하는 ‘고른음’을 지칭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니다.
- ⑤ 앞에서 말했듯이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네요. 역시 미리 생각한 ‘당연한’ 내용입니다.
- ⑥ 같은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마치 ‘진동’하는 것과 같은 모양의 파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삼각함수 그래프처럼 말이죠.) 따라서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⑦ ‘진동수’가 커진다는 것은 1초에 같은 파형이 더 많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파형이 반복되면 높은 음의 소리가 날 것입니다. 마치 영상을 배속하면 더 높은 음으로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진동수’가 커지면 ‘음고’가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 ⑧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부릅니다. 사인파의 모양이 ‘주기’를 갖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파형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 ⑨ 사인파의 진폭이 커진다는 것은 그 파형이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리의 세기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니다.
- ⑩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음악 소리가 전부 사인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음고나 음의 세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 다 똑같은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음악들은 각각 다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대부분 악기에서 나오는 음이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단순음’이 겹쳐지면 복잡한 음으로 들릴 수 있겠네요.
- ⑪ 이렇게 여러 개의 ‘단순음’이 겹쳐진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복합/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복합음’의 ‘부분’을 이루는 단순음들을 ‘부분음’이라고 한다는 것 역시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너무나 당연하네요.
- ⑫ 이처럼 ‘복합음’ 안에는 서로 다른 ‘진동수’로 이루어진 많은 ‘단순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 즉 ‘음고’가 가장 낮은 것을 ‘기본음’이라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기본’이 되는 ‘음’이네요. 나아가 우리의 귀는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 전체의 진동수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귀는 가장 듣기 편한 소리를 인식할 것이니, ‘음고’가 가장 낮은 ‘기본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네요.

여러분이 하신 생각과 얼마나 비슷하신가요? 지금 당장 얼마나 비슷하게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단을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해설을 보면, 이 문단을 이해하기 위해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읽거나(②,③,⑧,⑪,⑫)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납득하거나(③,④,⑨,⑫) 앞에서 생각한 내용을 끌고 오기도 하고(⑤,⑪,⑫) 우리의 경험 및 지식을 살려 이해하기도 합니다.(⑥,⑦,⑩)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고른음·시끄러운음, 진동수, 음고, 단순음, 복합음, 기본음’와 같은 수많은 정보를 ‘당연한 정보’로 만들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읽는 학생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억지로 기억해야 할’ 개별적 정보겠지만, 우리에게 ‘상식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읽고 나면 다른 문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 정보들을 활용한 선지들을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문장을 처리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들입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단어의 의미도 살려보고, 내 나름의 논리를 세워보고, 앞부분의 내용 및 생각을 끌고 내려와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보는 등의 ‘생각’을 하다보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내용들이 ‘이해’되고 ‘납득’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이제 여기에 더해, ‘문장’을 읽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생각들과 이 도구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최대한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애쓰는 태도에 맞춰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의 정의
2. 재진술
3. 사례 - 원리 연결
4. 고정값

이런 기본 도구 외에도 더 많은 스킬이나 방법론이 존재하겠지만, 그것들의 지향점은 결국 이 기본 도구들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배우는 것들만 완벽히 체화할 수 있다면, 수능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 도구가 완벽히 내 머리에, 눈에, 몸에 익숙해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것이니, 걱정 말고 내 눈 앞의 텍스트에만 집중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도록 합시다.

개념의 정의

수능 국어의 특징은 지문 내에 서술된 내용으로만 문제의 답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지식을 제외하면 여러분이 문제풀이에 사용하셔야 할 개념은 모두 지문 내에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를 오류없이, 정확히 풀어내기 위해서는 지문에 제시된 개념들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뒤의 '생각의 전개' 파트에서 강조할 내용인 '화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화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화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독해 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더라도, 지문에 정의된 개념들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독해는 알맹이 없는 껍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의 정의'를 평가원은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까요? 평가원은 크게 두 가지, '일반적인 정의'와 '수식된 정의'를 사용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정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아보시다.

일반적인 정의

말 그대로 아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방식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단합니다. 개념을 먼저 제시한 후에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장 형태로 표현하면, 'A란 B이다.', 'A은(는) B이다.' 등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개념의 정의를 체크한다는 것은, 'A(개념)=B(정의)'라는 도식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먼저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A=B'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연습하면 어렵지 않게 숙달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1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해준 후 '쇼윈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A는 B이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A=B'라는 점에 집중해서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만약 정의가 길어서 파악이 힘들 경우, 주어(S)와 서술어(V)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하면 한결 쉬워집니다. 그 후 각종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부분을 챙겨주면 되는 것이죠. '텍스트'라는 개념의 정의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아래 서술된 사고 과정을 따라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 텍스트(S)는 인공물이다.(V) → 어떤 인공물이지? → 여기서 인공물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구나. → 아! 그러니까 텍스트(개념)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인공물이네(정의).

→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했으니, 이제 '쇼윈도'가 무엇인지 이해해 봅시다. 쇼윈도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라고 합니다. 쇼윈도의 정의에 우리가 앞에서 이해했던 '텍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평가원은 앞에서 정의해줬던 개념이 등장할 경우 그 개념을 뒤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보들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모이면 한 지문의 '화제'가 되기 때문에, 앞 부분에서 정의해주는 개념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텍스트'라는 개념을 숙지했기 때문에 '쇼윈도'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쇼윈도'가 '공간 텍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쇼윈도는 '공간과 관련된 인공물'일 것이고, 그 '쇼윈도'라는 '텍스트'의 목적은 문장에 적혀 있는 것처럼 '소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여기서, 자연스럽게 '공간/텍스트'라는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배웠듯이,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정의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공간/텍스트'에서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렸다면, '쇼윈도'라는 것이 '공간'에 위치하며 '텍스트'의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정의를 훨씬 깊게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 다시 강조하지만, 평가원 지문의 개념들은 이렇게 서로 엮이고 부딪히며 한층 고차원적인 개념을 형성합니다. 그 개념들의 관계를 선지로 물어보면 어려운 내용 일치 문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문장들을 통해 더 공부해볼까요?

2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사막에 대한 정의가 두 개 등장합니다.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과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라고 말이죠. 두 정의 모두 중요할 수 있지만 맥락에 따라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 다음 문단에 나오는 정보들이 어떤 정의와 더 엮여 있느냐를 살피면 됩니다. 뒤의 정보와 엮이는 내용이 곧 '화제'와 직결되는, 더 중요한 '정의'일 테니까요. 역시 이를 판단하려면 두 정의를 손에 짚고 있어야겠죠?

저위도의 사막은 북회귀선이나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미국 서부의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과 ~

실제 이 지문의 다음 부분을 보면, '저위도/중위도'가 더 중요한 정의임을 파악할 수 있겠죠?

3

프레임(frame)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그런데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법을 '이중 프레임',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칭한다.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이번에는 '프레임'의 정의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역시 스스로 생각해 보고 사고 과정을 비교해봅시다.

→ 프레임은(S) 경계로서의 틀이다.(V) → 어떤 경계지? → 시각 매체에서 화면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구나! → 그 경계가 되는 틀이 프레임이네. '프레임(frame)'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와도 관련된 정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네.

→ 그런데 이렇게 프레임을 이해했더니, 뒤에 '이중 프레임', '이차 프레임'의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의 '텍스트'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프레임'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그와 관련된 '이차 프레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기법'을 '이중 프레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하는군요. 앞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서술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에 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프레임'과 관련된 정의이지, 그것들을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가적인 서술은 여러분의 사고력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같이 달려봅시다!

4

동영상 압축은 막대한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김으로써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데이터의 양을 수백 분의 일까지 줄이는 기술이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 등을 이용한다. 화면 간 중복은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것을 말한다.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 통계적 중복은 이들 데이터에서 몇몇 특정한 값이 나오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말한다. (2009학년도 수능)

→ 이제는 바로 가 보겠습니다. '동영상/압축'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남겨서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기술이네요. 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때문에 '압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네요.

본격적으로 '지문' 단위의 공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문을 장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인 '화제' 인식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1) :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어' 단위의 공부와 '문장' 단위, 그리고 '단문' 단위의 공부까지 끝마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지금까지 배운 걸 모두 적용하여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아겠죠? 이때 우리는 지문 독해의 대전제로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평가원의 지문에는 '정보량'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저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러한 전제하에서 글을 읽으려고 애를 쓰시면, 지문의 정보량을 '능동적'으로 줄이면서 부담감 없이 선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를 위한 첫 번째 태도, '화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차근차근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다면, '지문 단위'의 독해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문 독해'란 문장 간의 연결을 의미하고, '재진술'이나 '사례-원리 연결' 등 문장 간의 연결은 충분히 연습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문장 간의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 하나를 추가할 것입니다. 바로 '화제'입니다. 독서 지문은 정말로 '잘 쓴 글'입니다. 그리고 '잘 쓴 글'이라면, 글쓰기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야기, 즉 '화제'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독서 지문은 하나의 '화제'가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정보들이 그 '화제'를 부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 간의 연결'은 결국 '화제와의 연결성'이라는 속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는 지문을 읽으며 '화제'를 정확히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 '화제'는 단순한 '중심 개념'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지문에서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대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1만 개 이상 발견되었다. 이 화석들은 당시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룡 발자국 연구에서는 발자국의 형태를 관찰하고, 발자국의 길이와 폭, 보폭 거리 등을 측정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등을 알아낸다. (2009학년도 수능)

단순히 화제를 '중심 개념'에 해당하는 '공룡 발자국'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공룡 발자국을 통해 공룡의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디테일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독해는 '길찾기'의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은 길이 꼬불꼬불하고 갈림길도 많은 미로를 탈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은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나아가 그 정보는 왜 나왔는지 그 '역할'을 생각하며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역할'은 결국 '화제를 뒷받침하기 위해'라는 답으로 귀결될 겁니다. 이처럼 정보가 쏟아지는 느낌이 들 때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주시면, '화제'를 다시금 떠올리며 지문의 흐름을 잡을 수 있고, 위에서 이야기한 '길찾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화제'를 잡고, 그 '화제 중심으로 문장들을 '연결'하는 것. 지문 독해의 기본입니다.

(해설 p.024)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원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10 뒷글에서 다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11 윗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 ② 소아의 향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 ③ 대아의 향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향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⑤ 소아의 향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1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하여 아의 향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13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 ② ㉡ :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 ③ ㉢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 ④ ㉣ :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 ⑤ ㉤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14~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06 [16-21]

(해설 p.031)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

(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렸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

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15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16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 ②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로써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17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18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DAY 11 [7~12]

2017.11 [37~42] 사회(경제+법) '공정한 보험과 고지 의무'

☆☆☆☆

1문단

①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②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③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①~② #정의 제시

'보험'의 정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과 다를 것은 크게 없어 보이네요. 보험을 보유하면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것이니까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비나 합의금 등으로 인해 큰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의 '경제적 손실'을 보험이 메꿔주는 것이죠.

③ #재진술 #단어의 의미 살리기

'조건부 상품'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 앞에서 나온 말과 같은 말일 뿐이죠? '보험 사고 발생'이라는 '조건'이 실현되어야만 '보험금'을 얻을 수 있는 '조건부/상품'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화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1문단에서 화제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엔 지문을 읽으면서 정보를 하나로 모아 줄 특정한 '화제'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보험'과 관련된 지문이라는 생각만 하고 넘어가 봅시다.

2문단 (1)

[가] ①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②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③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①~② #수식된 정의 제시

일단 '보험료'와 '보험금'은 해당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점을 몰랐던 학생이라면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며 이해해야겠죠? 그래도 이제부터는 배경지식으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어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이때의 '사고 발생 확률'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관찰 대상이 많아지면 실제 확률에 근접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공동체가 낼 '보험료'와 받을 '보험금'이 계산되는 것이에요.

③ #화제 제시 #재진술

1문단에서도 말했지만, 보험 가입의 목적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위험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기가 위험한 정도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죠! 이 정도 문장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1번 문장의 내용도 재진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은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을수록 높을 테니까요!

1문단에서 잡지 못했던 화제가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문의 화제는 결국 '공정한 보험'이었네요. 보험이 공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겠죠? 궁금해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2문단 (2)

④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⑥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⑦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④ #재진술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처럼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되어야 하고, '보험료 총액=보험금 총액'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보험'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 설명처럼 단순하게만 체크하고 넘어가려 하면 문제 풀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것이예요. 우리는 '공정한 보험'의 조건을 충족하면 왜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납득하는 것이죠.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납득할 수 있어요!

개개인인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낸 '보험료 전체'가 모두 '보험금'으로 돌아와야 공정하다는 것이예요. 내가 납부한 '보험료'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보다 크다면, 돈만 많이 낸 것이니까 공정하지 않죠.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큰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정하지 않은 거고요. 받은 돈보다 낸 돈이 더 많으니까요! 3번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야 '공정한' 것입니다.

1문단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험은 '조건부 상품'이기에 조건이 실현되지도 않은(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보험금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위험 공동체가 낸 만큼의 보험료가 위험 공동체가 받는 보험금은 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거겠죠. 조금 어렵더라도, 결국 3번 문장을 '재진술'한 정보이므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그런데 여기서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보험금'이네요. 수식적인 부분이므로 옆에 써 놓는 것도 좋고, 체크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에서 사용해야 할 때 빠르게 돌아와야 하니까요!

그냥 써놓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만 더 이해해볼까요?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우리가 받을 '보험금'을 '기대'하는 정도를 뜻하겠네요. '이 보험으로부터 이 정도 보험금은 받겠지?'하는 값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일 것이예요.

그럼 이게 왜 '사고 발생 확률×보험금'과 같을까요? 우리가 1문단에서 읽은 것처럼 보험은 '조건부 상품'입니다. '사고'가 나야지만 '보험

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보험금'의 정도는 사고가 발생하면 받을 '보험금'에 '사고 날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사고 발생 확률×보험금'인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납득하면서 읽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⑥~⑦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화제의 흐름

다음으로 제시되는 개념인 '보험료율'은 ' $\frac{\text{보험료}}{\text{보험금}}$ '라고 합니다. 수식된 정의 제대로 체크할 수 있겠죠?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이라 '보험료/율'인 것이네요. 이 정의와 더불어 '보험료율-사고 발생 확률'에 따라 '보험료 총액-보험금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크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체크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고 '납득'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시험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어요!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다는 건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다는 겁니다. 이는 곧 '사고가 나는 것(사고 발생 확률)'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소리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 구성원 전체가 받는 보험금 총액보다 내는 보험료 총액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낳겠죠? 그 반대의 상황에선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겠구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식적으로 따져봅시다. '보험료율×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부등식의 두 항에 각각 '보험금'을 곱해주면,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 문장에서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어야 한다고 했고, 이것이 깨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납득했었죠? 결국 또 '같은 말'이었네요.

결국 7번 문장의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위에서 이야기하던 '보험금 총액=보험료 총액' 이야기와 '같은 말'이 되는 것이예요. 따라서 이 지문은 2문단 내내 '사고가 날 확률만큼만 보험료를 내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정보량을 줄여내는 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부분을 읽을 때는 지금 뭘 읽었는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보험'에서의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해 읽었어요. 두 번이나 정의해준 '공정한 보험'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지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보험료 산정 방법이었던가요? 화제를 좀 더 구체화시키려 가봅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10%	9%	65%	7%

0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

① 천명 의식은 농경 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천명 의식은 천에 절대적 권능이 부여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해설	'천명 의식'은 가치중립적이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었던 '천'에 '가치'가 개입되면서 나타난 개념이기 때문에, '농경 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농경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천명'을 떠올린 것은 아니니까요.

② 천은 초월적인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동양은 현실 세계에 관심을 두었잖아.
해설	'천'이 '인간 삶의 표본'이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초월적인 세계 안'이에요. 여기서 이 말을 보자마자 '동양'을 떠올릴 수 있겠죠? '동양'은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던 곳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니까요. 개념의 정의를 확실하게 체크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 생각 심화 |

사실 이 내용을 생각해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는 정보가 답이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건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런 선지는 일단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③ 자연으로서의 천 개념에는 작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연천은 작용을 포괄하잖아.
해설	'자연천'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 현상이다가 '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고자 부단히 애를 썼다고 했어요.

④ 천은 인간에게 자연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천의 정의 그 자체네.
해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정답으로 제시된 모습입니다. '천'은 '초월적' 성격을 가진 '자연현상'이자, '내재적' 성격을 바탕으로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지문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니 아주 빠르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⑤ 내면화된 천은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 행사의 기반이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배타적 권력 행사의 기반은 상제천이었지.
해설	'내면화된 천'은 '의리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면화'라는 개념 자체가 '도덕'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죠? 한편 '배타적 권력 행사'는 '상제천'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는 '의리천'을 기반으로 '배타적 권력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했으니, 틀린 선지네요. 각 '천' 개념의 정의와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79%	5%	4%	7%

10 <보기>의 ㉠~㉣ 중, 윗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②

[보기]

특정한 사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 개념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 개념의 의미 변천, ㉢ 해당 개념에 대한 주요 사상가의 견해, 그리고 ㉣ 현대적 적용 양상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개념에 대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 사상사 속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쟁점이 표출하는 다양한 의식의 층위도 고찰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천 개념의 의미 변천이 이 지문의 화제지.
해설	화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지문은 '천' 개념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양상을 살피고 있었어요. 가볍게 2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9%	6%	19%	19%	7%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

- 마지막 문단을 읽으며 열심히 이해했던 '자율성'과 '타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율성'은 '의리천' 개념에서 부각된 것이고, '타율성'은 '상제천' 개념에서 부각된 것이었어요. 이를 미리 생각한 채로 선지를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① '자연천'에서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부각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율성은 의리천부터지.
해설	우리가 미리 생각한 대로, '자율성'이 부각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자각을 강조한 '의리천' 개념에서였습니다. '자연천' 개념하에서의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던 존재였기 때문에, '자율성'이 부각된다는 말은 틀렸네요. 이 내용을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서 미리 생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는 주관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이를 위해선 평가원이 요구하는 '생각의 힘'을 확실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② '상제천'에서 인간 행위의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타율성은 상제천부터!
해설	인간 행위의 '타율성'은 '상제천' 개념에서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 역시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가볍게 지워낼 수 있네요.

FAQ

Q 마지막 문단의 '생각 심화'에서 인간 행위의 '타율성'은 '초월성=자연천&상제천'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번 선지가 묻는 것처럼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초월성' 개념이 처음 등장한 '자연천'부터 아닌가요?

A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자율성&타율성이 아니라, '천'에 의해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묻고 있어요. '자연천' 개념하에서 인간은 '천'의 영향으로 하게 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습디다. '자연천' 개념하에서 나타난 인간의 행위라고 해봤자 결국 농사인데, 농사는 '천'의 영향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천명 의식'의 등장으로 '상제천' 개념이 자리잡으면서, 인간은 '천'에 의해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천의 명령이라는 '타율적'인 개념으로부터 '정치'라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예요! 따라서 '천'에 의한 '인간 행위의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상제천'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의리'천'에 의해 '도덕적 자각'이라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나타난 것이구요. 단순한 '자율성&타율성'만으로도 생각하면 헛갈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초월성'이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맞지만 이때의 '초월성'은 '천명 의식'을 전제하는 개념인 것이예요. 반대로 '자연천'에서의 '초월성'은 '자율성'도 '타율성'도 없는 개념이었구요.

③ '의리천'에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잘 발휘되면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의리천의 핵심이지.
해설	'의리천'은 인간 행위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천을 내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개념이예요. 여기서 '천을 내면화'하는 것이 바로 '천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었죠?

④ 천 개념의 개방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의리천 쪽으로 가면서 자율성이 인정됐지.

해설	'자연천' 개념에서는 '자율성·타율성'도 없었는데, '상제천' 개념에서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리천' 개념에서 '자율성'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문의 흐름을 고려하면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	---

⑤ 천명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계속 똑같은 말만 하네.
해설	'천명 의식'의 '불변성·독점성·편파성' 등이 수정되면서, 인간 행위에는 '자율성'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앞 선지들을 판단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똑같은 내용이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9%	9%	59%	12%

12 윗글의 천 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④

- 이 지문에 제시된 각 '천' 개념의 예를 찾는 문제입니다. 각 '천' 개념이 가진 특징이 대응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참고로 이 문제는 지문에 없는 말을 활용한 선지가 많다는 점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비록 지문에 없는 말이라고 해도, 모든 선지는 지문의 '재진술'이라는 점 잊지 않았죠? 결국 지문의 어떤 말과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긴장하고 해결해봅시다.

ㄱ. 천은 크기로 보면 바깥이 없고, 운행이 초래하는 변화는 다함이 없다.

- '천'의 크기가 '바깥이 없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크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천' 개념들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했던 '천의 초월성'을 재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를 가늠하지 못할 만큼 '초월적'인 개념인 것이예요.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고서는 어떤 '천'의 예시인지 알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운행이 초래하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운행'의 주체는 '천'입니다. '자연현상'인 '천'이 '운행'하면서 초래하는 '변화'는 결국 '자연의 변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변화'가 다함이 없다고 합니다. 자연의 변화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 변

화의 원인과 의지'를 알지 못하던 '자연천'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를 알았다면 '자연의 변화'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것이니 '다함이 없다.'와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겠죠.

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살피면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주재·운용'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상제천'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천'이라는 개념에 '의지'가 부여되어 만물의 길흉화복과 생사여탈권까지 관장하는 종교적인 개념이 되었죠?

ㄷ. 인심이 돌아가는 곳은 곧 천명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거스르고 천을 따르는 자는 없고, 사람을 따르고 천을 거스르는 자도 없다.

- '천'을 '사람'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스르면 '천'도 거스르게 되고, '사람'을 따르면 '천'도 따르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사람'과 '천'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것으로, 지문의 '내면화된 천'이라는 내용을 재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면화된 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리천'의 관점이었죠?

ㄹ. 이 세상 사물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것들까지 천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들 한다. 대체 하늘이 어떻게 하나 하나 명을 낸단 말인가? 천은 텅 비고 아득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으면서 저절로 되어 가도록 맡겨 둔다.

- 하늘이 명을 내리는 것(='천'의 의지)을 부정적으로 보고, 텅 비고 '아득'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무런 조짐'도 없다는 건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을 '초월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여기던 '자연천' 개념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절로 되어 감'은 '자연'[自 스스로 자 / 然 그러할 연]이라는 단어의 뜻 그 자체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다면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최근의 경향인 '고난도 선지'까지 보여 주고 있어요. 모든 선지는 지문 내용의 재진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